

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

Louis Bourgeois, 강청란 작사



주 여 내 몸 과 내 세 : 마 상 : 음 후 기 주 뵈 면 과 설 음 히 다 바 치 오 리 니 라



네 아 들 게 예 수 명 희 생 보 - 사 자 우 리 제 물 을 겨 받 으 읊 시 었 서 네



우 리 제 물 을 겨 받 으 읊 시 었 서 네